

6-3. 디지털 사업 기획 (신사업)

오픈이노베이션부

Q1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신사업 기획 직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가진 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모델 및 서비스 기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업무를 소개하자면, ① 글로벌 기술 파트너사 리서치 및 발굴 ② 글로벌 기술 파트너사들과 신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프로덕트 개발 ③ 개발한 프로덕트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털 기획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Q2 업무상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증권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도 결합하여 신사업을 기획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창의력이 필요해요. 물론 이는 **증권업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증권/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프로덕트를 개발하기 위해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등 **최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프로그래밍 및 외국어 스킬**, 그리고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파트너사 소속 직원들과 협업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울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Q3 업무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수익구조도 중요하지만, 신사업 기획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안전하게 신사업을 랜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슈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6.3. 디지털 사업 기획 (신사업)

특히 금융업권에서 신사업 추진 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 규제와 법률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에요.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신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는가 하는 등의 문제로 처음부터 꼼꼼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최고의 프로덕트를 개발하려면, 한국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규제와 법률까지 검토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Q4 어떤 파트너와 일하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것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파트너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대형 기업 및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에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논의된 후에는 같이 기술업체들과 공동으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 IT와 협업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기획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의 강점이 많은 부분은 무엇이든 프로덕트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부서가 저희의 잠재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